



의안번호	제 2023 - 17호
보 고 연 월 일	2023. 8. 8. (제12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제9기 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2
1. 개요	2
2. 양형자료조사 내용	2
3. 통계분석 내용	3
III. 2023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5
1. 목표	5
2. 교육기간 및 장소	5
3. 교육 과정	5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5
5. 교육 내용	5
IV. 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6
1. 개요	6
2. 행사 개요	6
3. 참석자	6
4. 심포지엄 주요내용	7
5. 심포지엄 세부일정	14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6
1. 한국저작권보호원	16
2. 경찰청	17
3. 문화체육관광부	18
4. 온라인 청원(청원24) 접수 의견 보고	18
5.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22
6.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25

【별첨】

경찰청,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관련 참고자료(추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

청원서(김○빈 외 7)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5차	2023. 7. 17. 16:00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II. 제9기 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2023. 6. 12.)에서 제9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가 선정됨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2023. 6.부터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착수
 - 전반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 후반기: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제9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스토킹범죄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지식재산권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설정·수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2. 양형자료조사 내용

가. 조사 대상범죄

- 지식재산권범죄는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 10. 21.) 이후 2023. 03. 31.까지, 마약범죄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각각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함

나. 조사 기간

- 양형기준 수정대상인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6. 23.까지, 마약범죄에 대하여 2023. 7. 18.부터 7. 28.까지 각각 판결문 조사 방식에 의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양형기준 설정대상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7. 17.까지 검찰청 출장조사와 판결문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

다. 조사 방법

- 판결문조사 방식: 양형자료분석관 중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분석관을 제외한 본부 소속 분석관 8인과 자료조사과장, 행정관을 포함한 전체 10명으로 조사를 시행함
- 출장조사 방식: 양형자료 분석관 15인과 통계분석과장 등 18인이 2~3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30개 지방법원(지원) 및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 방문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스템에 입력

라. 조사 경과

- 지식재산권범죄: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739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력 및 자료 정리 중임
- 스토킹범죄: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683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력 및 자료 정리 중임
- 마약범죄: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2,228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력 및 자료 정리 중임

3. 통계분석 내용

- 지식재산권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집된 양형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각 장에는 사건 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나타낸 다음, ①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제시하고, ②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¹⁾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를 분석하며, ③ 카이제곱 검정 방식²⁾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형·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함

1) 각각의 양형인자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의 항목이 2개 일 때는 T-test를 사용하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는데, 카이제곱 검정 방법과 다른 점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형량)라는 것임. 분산분석 및 T-test는 각 양형인자의 항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의확률(p) 값이 유의수준(0.05) 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할 수 있음

2) 양형인자 각각의 분포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등과 같이 두 변수(문항)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방법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이라고도 함. 독립변수(양형인자)의 준부에 따른 종속변수(집행유예 여부)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의확률 p값이 유의수준 값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됨

III. 2023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 목표

- 양형자료조사, 양형기준 운영점검 등 양형자료분석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
- 신규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2.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교육기간

- 2023. 7. 5.(수) ~ 7. 6.(목)

나. 장소

- 사법연수원 융합IT강의실(113호)

3.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15명): 양형자료분석관
- 교육 강사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통계행정관

5. 교육 내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매뉴얼 안내 및 사용방법 실습

IV. 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1. 개요

-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및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수렴’ 이란 소주제별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 심포지엄 내용과 결과는 양형기준의 설정 및 수정 작업 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 행사 개요

- 주 제: 『AI와 양형』
- 주 최: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 일 시: 2023. 6. 26.(월) 14:00 ~ 18:00
- 장 소: 대법원 1층 대강당

3. 참석자

- 개회사: 양형위원회 위원장, 양형연구회 회장
- 진행자: 범선윤(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사회자: 신숙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조은경(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발표자: 오세용(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혜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김정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원(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이 진(엘박스 대표), 윤지

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태영(언더스코어 대표)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 제1세션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오세용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 양형기준 수립과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통계분석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지도학습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음 ☞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양형분야
- 인공지능 사법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중요함.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일부 특징을 식별하고 명명하면서 수많은 다른 특징을 무시하거나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는데, 양형인자 분류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와 불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 차별이나 편향을 증폭하고 재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존 구조적인 문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형사재판에서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추구하는 노력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토론 요지

-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보강’ 또는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양형절차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판절차는 자연스럽게 유무죄심리와 양형심리로 이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형 인공지능의 제작단계 및 이후의 운영단계를 감독할 기관이 필요함

(다) 이종원 검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현재 기술적, 제도적 이유로 인공지능이 재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설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 ☞ 소송기록, 소송기록 외 양형데이터, 소위 ‘상식’에 대한 접근성 문제
- 인공지능은 대부분 그 세부 작동원리가 불투명함. 학습한 데이터 자체를 해독하기 난해한 형태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의 구조에 반영하기 때문. 형사법 분야 및 형사실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특정 결론뿐만 아니라 해당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전제되어

야 함

-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단구조를 형성하므로, 데이터가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역시 그러한 편견을 답습할 위험이 있음(소위 '기계 편견' 문제). 기계 편견은 다른 사회분야보다 형사법 분야에서 더욱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음
- 재판 데이터 접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불투명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식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사용자인 법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산출한 결과 중 오류 및 편견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사법 인공지능의 개발, 유지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에 올바른 방향의 인공지능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라) 이진 대표(주식회사 엘박스)의 지정토론 요지

- 법관의 업무 중 AI활용이 가능한 항목은 '신건 메모 작성 및 텍스트 내용 요약', '사실관계 확정 및 판단', '유사 하급심 사례 리서치', '판결문 초안 작성'이고, 이는 현재 재판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정확히 일치함. AI 기술을 법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모든 법관의 코트넷 계정에 'AI 재판연구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규범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법관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사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는 점, 기존 선례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판결에 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조시장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규제하는 방향으로 어젠다가 설정되고 있어 우려됨
- 법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성과를 증명한다면 법조 분야 전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

(2) 제2세션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박혜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양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

- 양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국면을 제시
 - ① 감성분석기술(sentiment analysis)을 이용한 국민의 법감정 수렴방법의 다각화: 양형에 관한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수집하여 그곳에 드러난 국민의 법감정을 감성분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류·분석함으로써 공청회나 여론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기존의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서는 미처 포착하기 어려웠던 법감정의 추이나 온라인상에 드러난 솔직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음

- ② 재범위험예측기술(recidivism risk assessment)을 이용한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
 - ③ 정보추출기술(information extraction)을 이용한 양형분석의 자동화 : 양형인자와 형량을 추출하는 작업을 정보추출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다면, 이를 통하여 실시간 양형분석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법관들에게도 실시간 양형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임
-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방안으로 '빅데이터 감성분석 기술' 제시
- 온라인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감성분석은 대중의 의사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변화하였다는 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트렌드 발견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방대한 표본의 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여론의 추이(trend)를 관찰하기에 적합함 → 양형위원회의 기존 국민의 법감정 수렴방식을 다각화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감성분석 기술 도입 시 유의할 점
-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는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심지어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인지, 작성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인터넷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 필요

(나) 윤지영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

토론 요지

-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파악된 국민의 법감정이 건전한 상식인지는 의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발생하면 입법자들이 법정형을 높이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여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있고, 오히려 그 과정이 줄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양형기준은 변화된 법정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성분석 대상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문제임
- 감성분석을 양형 분야에 적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특정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나리오 형식으로 세부 유형을 제시한 후 적정한 양형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방법임
- AI 시스템에 대한 상당수 비판은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정한 분석과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것임. 특히 양형 단계에서 사용될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 의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판사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임

(다)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형사사법의 일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형사사법 참여자를 보조해 주는 것은 형사사법의 효율화 및 신속성 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요청
-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반영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판단력이나 재량과 같은 인간만의 영역을 대체하기 어

려움.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양형판단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규범적 전문성을 시민들의 지성과 감성에 전달하는 과정일 것임.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원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양형을 결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결정이 시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라) 강태영 대표(언더스코어)의 지정토론 요지

- 성공적인 양형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참고하여야 할 요소
 - ①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하지 않게끔 전수 데이터, 혹은 적어도 무작위 표집된(random sampled)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② 학습용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종 점수(양형 예측의 경우 '형량')를 도출하는 데에 인간 전문가가 접한 자료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③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정보가 데이터에 모두 존재해야 편향의 존재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계적·공학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④ '전산처리 가능한(machine-readable) 형식의 데이터셋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인간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적 활용', 그리고 업무의 '완전 자동화'라는 세 요소는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법 감정 수렴 관련, 기사

(article) 단위가 아니라, 유저(user) 단위로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통계적 편향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댓글을 작성하는 유저들은 인구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기에 그 절대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음. 그러나 편향된 샘플 내에서도 그 추세(trend)로부터는 충분히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
- 다만 유저 단위 온라인 데이터 분석 방법도, ① 포털이 아니라 개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뉴스 이용 양상이 다각화되어 기존처럼 포털 뉴스를 충분히 유저 대표성을 지닌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서 포털에서 댓글 서비스를 축소해가고 있다는 난점이 존재함

5.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 확인	
14:00-14:10	식 전 행사	개회식 사회: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4분)
14:10-15:50 [100분]	◆ 제세션 [소주제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사회 : 신숙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오세용(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정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이종원(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15:20-15:35 [15분]	지 정 토 론	• 이 진(엘박스 대표)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소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사회: 조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양형연구회 부회장)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 박혜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형과 인공지능」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 강태영(언더스코어 대표)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한국저작권보호원

가. 질의 내용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입니다.

저희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구요.

최근 "누누티비" 사태로, 관련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6월 발표). 여러 대응방안 중 하나로 "양형기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정절차가 2가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운영지원단"에서 양형자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양형기준안을 의결,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와
2. 대검, 특허청 등 유관기관에서 양형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후, 수정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에서는 2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안의 업무진행을 위해 저희가 알아두어야 할 절차적 내용이 있을까요?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진행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은 신속한 다른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저작권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나 판례들을 보면, 1~3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인 사례가 많고 누누티비, 밤토끼 등 대규모 상습 유통자는 산업 피해가 약 5조에 이르고, 해외 수출을 막는 등 산업의 피해가 무척 크고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여, 범죄자 특정 검거까지 국제공조 등 수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재판을 받는다 하여도 형량이 적어 범죄억제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에, '제2의 누누티비'가 계속 생겨나 성행중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 회신 내용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독립 위원회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따른 양형위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문의하신 1번이 양형기준 수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고, 2번은 양형기준 수정 절차가 아닙니다. 외부 기관에서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은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경우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시더라도 해당 의견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2. 경찰청

가. 양형기준 관련 의견서 제출(2023. 7. 11.)

- 영업비밀 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관련 참고자료(추가)(별첨 1)

나. 주요 내용

- 현재의 양형기준은 2017. 5월 최종 수정된 것으로, 이후 기술유출 범죄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정형이 상향됨(2019. 7월)
- 피해의 심각성 등 법정형 상향 취지 및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죄질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는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함

- 경찰에서 2021년 ~ 2022년 검찰에 송치한 193건의 처분 결과를 분석한 바,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2백만 원 ~ 2천만 원의 벌금 (7건) 또는 집행유예(징역 1~3년 및 집행유예 2~4년) 처분(2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양형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횡령·배임 등 유사 범죄에 준하도록 상향 및 감경요소 수정 등을 제안함

3. 문화체육관광부

가. 양형기준 관련 의견서 제출(2023. 7. 11.)

-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별첨 2)

나. 주요 내용

- (현황) K-콘텐츠 불법 유통 증가로 인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초동 대응인 접속차단 직후 대체 사이트로 변경하여 행정조치의 효과가 적고, 실제 수사에 있어서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우회기술을 활용, 운영자 검거까지 오랜 기간과 공권력이 소요됨
- (필요성) 검거 후에도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 예방 효과가 낮음에 따라 법관의 형량 결정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권고 형량범위 상향(영리적·상습적인 침해범죄의 경우 법정 형량의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상향 제안), 양형인자 정비('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신설,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4. 온라인 청원(청원24)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하여 마련된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 접수

된 의견 보고

- 공개청원 처리 절차: 청원심의회 개최 요청(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통보(주관부서) → 청원심의회 의결 → 처리결과 통보(주관부서) → 청원공개결정 및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절차(30일, 처리부서) → 제출된 의견 취합 후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 → 청원처리결과 통지(90일 내, 처리부서)
- 각 청원서(별첨 3) 접수

나. 결과통지 완료된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 요지
1	2023. 01. 30.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함
2	2023. 01. 30.	○ 피고인의 반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함
3	2023. 06. 15.	○ 국가보안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공백으로 발생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함
4	2023. 04. 24.	○ 현재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심신미약, 피해자와 합의 등 감경인자가 많아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수정해야 함
5	2023. 05. 19.	○ 반성문 제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부당함

- 1번 및 2번 의견(동일인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 따라서 특정 재판에서 초범 또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하여 달라는 청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양형인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및 4번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 특별양형인자: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 일반양형인자: 정해진 권고 영역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로서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인자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확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양형인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절차 진행 중인 의견(2023. 7. 25.까지 접수 총 3건)

연번	접수일자	의견 요지	비 고
1	2023. 06. 15.	○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부당함	국민의견 수렴 중
2	2023. 06. 19.	○ 양형기준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양형인자(인정, 반성, 초범, 음주, 주취, 불우한 가정환경)를 폐지해야함	”
3	2023. 07. 18.	○ 피해자(유가족)가 거부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반대	”

5.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7. 15.까지 총 23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5. 5.(1)	○동물보호법 강화 요청
2	2023. 5. 5. ~ 2023. 6. 21.(1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요청
3	2023. 5. 10.(1)	○양형체험 프로그램 영상 중 자막 없는 영상에 대한 자막 설정 요청
4	2023. 5. 11.(1)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 및 처벌 강화 요청
5	2023. 5. 17.(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3. 6. 5.(1)	○특정 동물학대 사건 처벌 강화 요청
7	2023. 6. 15.(1)	○무고범죄 처벌 강화 요청
8	2023. 6. 17.(1)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요청
9	2023. 5. 10. ~2023. 6. 21.(3)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동물보호법 강화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 업무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임기 중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내 공지사항 2023. 7. 5.자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임기 중 동물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내 공지사항 2023. 7. 5.자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에 보고하여 향후 콘텐츠 운영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5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특정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임기 중 동물학대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내 공지사항 2023. 7. 5.자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경과 및 회의 결과의 요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7. 15.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7. 11.(1)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6.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국민신문고 게시판)

가.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7. 15.까지 총 15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순번	접수일자 (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3. 4. 24.(1)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형량 요청
2	2023. 5. 3.(1)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감경인자 엄격하게 수정 필요

3	2023. 5. 4. ~ 2023. 5. 19.(5)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
4	2023. 5. 6.(1)	○음주운전, 마약, 사기 사건 양형 강화 요청
5	2023. 5. 8.(1)	○증권·금융범죄 처벌 강화 요청
6	2023. 5. 15. ~ 2023. 5. 16.(2)	○스쿨존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7	2023. 5. 15.(1)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감형 없는 실형 요청
8	2023. 5. 17.(1)	○어린이나 노약자가 범죄피해자인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청
9	2023. 6. 7.(1)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제작 관련 건의(올해 제작 중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10	2023. 6. 12.(1)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형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4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동일 민원)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형량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민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청원법 제16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원민원처리내규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반복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귀하가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동일 민원)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따라 2023. 4. 24. 양형위원회에서는 해당범죄를 포함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위 양형기준은 시행일인 2023. 7. 1. 이후 공소 제기되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에 관해 의결한 이후 접수된 귀하의 처벌 강화 취지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민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청원법 제16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원민원처리내규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반복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귀하가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개별

적인 판결 결과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각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가 범죄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 제작한 체험 대상 범죄 이외에 체험 대상 범죄를 다양화 하는 등의 매년 추가 콘텐츠 제작을 진행,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추가될 체험 대상 범죄군은 디지털성범죄와 명예훼손범

죄이고 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회의에 보고하여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개별 판결 결과에 대한 민원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3. 07. 15.까지 총 8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6. 13. ~ 2023. 6. 16.(2)	○ 음주운전사고 양형기준 상향 요청
2	2023. 6. 23.(1)	○ 각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 요청

3	2023. 7. 1. ~2023. 7. 10.(2)	○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4	2023. 7. 7.(1)	○ 개별사건 판결의 억울함 호소
5	2023. 7. 12.(1)	○ 마약범죄 강력 처벌 요청
6	2023. 7. 13.(1)	○ 전세사기사건 강력 처벌 요청